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을 소개합니다②

펀디인, 스튜디오툴툴, 엔터즈컴퍼니, 아쿠아런

지난 1월호에 이어 28청춘창업소와
함께하게 된 창의적인 입주기업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펀디인 (김미정 대표)

펀디인은 리플렛, 전단지, 엽서, 현수막 등의 인쇄광고물을 디자인하는 회사이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중 만난 발달장애 작가들은 독창적인 생각과 그림 솜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발달장애 작가들의 불안한 사회적 입지, 사회와 상생하는 방법 등의 고민은 펀디인의 사회적 기업을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가진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 발달장애 작가와의 협업으로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상생을 돕고 있습니다. 마침 각 지역에 있는 프리랜서 동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28청춘창업소 입주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팀원이 3명인 규모가 작은 회사지만, 모두의 상생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튜디오툴툴 (주윤하, 한다영 대표)

스튜디오툴툴은 사람들의 러프한 아이디어를 워크숍이나 인터뷰를 통해 발전시켜 실제 제품이나 콘텐츠로 디자인하고, 나아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수익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청춘창업소는 저희 사업 분야 중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한 워크숍, 인터뷰를 홍보·진행하기에도 좋은 공간과 위치라서 더 입주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역 근처에 있고, 근처에 주거지가 많다는 게 큰 매력이었는데 입주하게 돼 기쁩니다. 이제는 '디자인 회사로서 살아남기'가 목표입니다.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간은 해결됐지만,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해 인력을 쉽게 뽑을 수 없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고양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창업기업이 다른 청년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즈컴퍼니 (이샤야 대표)

고양시 기반의 행사와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기획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캐치해 고양시 기반 청년들이 합심해 공연 및 축제를 기획하는 기획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사 MC로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엔터즈컴퍼니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기반 엔터테인먼트로서 고양시의 축제와 행사 등을 진행하며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함으로써 많은 득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사전미팅이나 촬영을 진행할 때 외부카페에서 진행했는데 이를 해소하게 돼 정말 뿌듯하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8청춘창업소 내에 청년 창업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많이 생기길 바라며 고양시 청년들이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쿠아런 (박상현 대표)

아쿠아런은 저희가 제작한 헬스폴 속에서 여러 운동 기구를 활용해 다양한 수준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자본이 많이 필요해 사무실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28청춘창업소는 자본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창업의 꿈을 실현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8청춘창업소에서 청년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며 창업에 대한 열정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28청춘창업소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28청춘창업소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

